

보 도 자 료	 GCN녹색소비자연대 National Council of the Green Consumers Network in Korea	
2026년 4월 7일(화) 이 자료는 배포 후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담 당	정현수 GX녹색전환위원회 위원장 (☎ 02-3273-7117)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 02-3273-7117) 서아론 국장 (☎ 02-3272-2383)

소비자 없는 K-GX는 완성될 수 없다

생활양식·구매전환 중심의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녹색전환 정책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먹거리·유통·공공조달·지역인프라까지 소비자 중심의 GX전환 제안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기후솔루션,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협의회는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만드는 GX, 생활양식과 구매전환으로 여는 녹색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송옥주·이소영·전종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기술·산업·공급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기존 녹색전환 정책의 한계를 짚고, 소비자의 생활양식 전환과 구매전환을 국가 녹색전환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GX정책 현황과 한계, 생활양식·구매전환의 정책 필요성’을 기조발제로, 정현수 GCN녹색소비자연대 GX녹색전환위원회 위원장이 ‘GX 기술에서 생활로 - 소비자 선택이 국가 전력이 되는 길’을 주제발제로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는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이상아 기후솔루션 팀장, 양지안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무총장,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 인증센터 센터장, 기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과장이 참여하였다.

발제에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AX (AI Transformation)와 GX (Green Transformation) 중 AX를 중심으로 기울어져있고, 현재의 K-GX가 공급과 기술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시민의 삶과 지역, 소비 전환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 분야에 대한 소비자 지원 정책으로 식품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전환이나, 식품 폐기물 감축, 식물성 식단 확산 등 식품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녹색구매영역에서는 녹색상품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정책 지원과 수리·재사용·리필·지역기반 서비스 확대 등 생활 전반 인프라의 지역사회 확충이 제안되었다. 또한 개별적인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녹색전환과 관련된 법을 GX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산업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고 속제를 뒤로 미뤄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정부가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소비자를 소외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비용이 제대로 측정되고 시장에 반영되면 많은 것이 풀리는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친환경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 향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대정 과장은 녹색구매와 관련해 녹색구매 촉진 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며, 이것이 K-GX전략과 연계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녹색제품의 범위가 환경표지인증, 저탄소, 우수재활용 3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부처 소관의 친환경과 저탄소 관련 인증을 녹색제품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내용이 K-GX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CN녹색소비자연대 GX녹색전환위원회 정현수 위원장은 “소비자는 더 이상 녹색 전환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에너지, 먹거리, 자원순환, 녹색구매, 녹색공간 이용 등 생활 전반에서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친환경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인센티브 강화, 기업의 녹색혁신을 견인하도록 하는 소비자 감시 기능 강화, 녹색전환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사회적 수용성 확대,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여, GX에서 소비자가 주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04.07.



GCN녹색소비자연대
National Council of the Green Consumers Network in Korea

토론회 사진



단체사진



토론회 전경



김병권 소장



정현수 위원장



유미화 상임대표



이상아 팀장



양지안 사무총장



김녹영 센터장



김동주 사무총장



기대정 과장



박지혜 국회의원



전인수 이사장